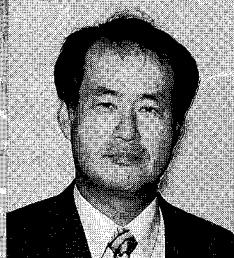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기싸움



김정인
신촌사료(주) 부사장

전에 유럽에서 온 외국인 두명과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 서울 마포에 있는 모 관광호텔 부페식당에 갔을 때 일이다. 이 날 따라 식당에는 손님들이 많기도 했거니와 한쪽 구석에서는 아기 돌잔치가 있어 보통때보다 손님이 많은 편이었다.

부페식당이라는 곳은 음식을 자기 자신의 양 만큼 갖다먹고 종업원의 서비스를 생략하여 비교적 저렴하게 식사하는 곳이라 하겠다.

따라서 몇가지 지켜야할 예의가 필요한 곳인데 예를 들면 음식을 접시에 앙만큼 덜어먹되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는지, 식당에서 한쪽에 준비해 놓은 음식들을 여럿이서 나누어 먹는 관계로 덜을 때 청결하게 나눈다든지 하는 것 이라 하겠다.

물론 음료수나 주류를 갖다주고 서빙하는 종업원들은 있다.

자리를 잡고 상의를 벗어 걸고 맥주를 시킨후 숨을 돌리고 보니 두명의 외국인 손님들은 눈이 휘둥그레서 할말을 잊고 있는 것 이었다.

가만히 보니 식당안은 돌잔치에 데리고온 대여섯살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어서 매우 소란스러웠다.

몇번 옆을 치고 가는 아이들에게 뛰지말고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어떤 젊은 엄마가 자꾸 내쪽을 훑겨보는(?) 시선을 등뒤에서 느낄 수 있었지만 들고 뛰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어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외국인들에게는 미안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자리를 옮기기도 뭐하고 해서 돌

잔치가 있어서 좀 시끄럽다고 설명을 하고 음식을 가지러 갔다.

그런데 아이들이 음식을 진열해 놓은 곳을 왔다갔다하면서 한 두 아이가 음식을 손으로 집었다 놓았다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손가락으로 음식을 찔러보는 아이까지 있었다.

종업원을 불러서 얘기를 하였더니 난처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주의를 주기도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달려와서 남의 아이를 왜 야단치느냐고 항의하는 일도 찾다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일은 외면하고 왜 자기 애들 기를 쪘는냐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어느 신문칼럼을 본 생각이 났다. 요즈음 흔히 아이들을 키우는데 절대로기가 죽지않게 키운다고 자랑하는 젊은 부부가 많다고 한다.

나가서 놀다가 혹시 친구들에게 맞고라도 들어오면 왜 맞고 들어오느냐 때려야지 하고 야단치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때린 애를 찾아 야단치고 더 나아가 상대방 부모와의 다툼으로까지 확대되고…….

모두가 기껏해야 아이들 한둘밖에 안낳는 세상이라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겠는가? 더욱더 사랑스럽고 귀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기만 살고 죽을 줄 모르면 이들이 커서 구성될 이 사회는 옳은 일 그른 일 가리기 보다는, 남의 의견을 경청하기 보다는 자기 주장만 폄는 이상한 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코피 터지는 애들은 없고 터뜨리는 아이들만

있는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이웃 일본에서는 애들을 기죽이고(?) 키운다고 한다.

어릴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교육한다는 것이다.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혀 차게 기르고 애가 넘어져서 울드라도 부모들은 일으켜주지 않는다고도 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이들 어린이들이 커서 이룬 사회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작년도에 일부 축산인에게 이슈가 되었던 일부 「사료첨가제」가 사료냐 동물약품이냐 하는 논쟁은 한쪽의 K.O패로 끝났다. 끝나기까지 상대편을 기죽이느라고 인신공격까지 해댔고 토론이나 대화는 실종되었다.

강경일변도를 주장하던 인사들이 오늘 어디서 무엇이라고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거대한 사회 구조조정의 한 페이지로 시작된 농협·축협의 통합이 반대하는 측과 강행하는 정부쪽으로 갈라선 후 한쪽이 장렬하게 피흘리며 전사(?)할 결론쪽으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토론할줄 모르는 한국인, 강하지만 질기지 못한 한국인, 이런 평가속에서 우리 축산 업계 만이라도 서로 토론하고 이해해가며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계란을 손해보며 수입하는, 노계, 환우계의 계란을 차별된 가격으로 구입하겠다는 계란상인들도 없어지지 않겠는가? 새천년 새봄에 부질없는 싱거운 소리만 늘어놓아 독자들의 아까운 시간이나 뺏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양께